

아급성기-유지기 재활의료전달체계

서울재활병원 회복기병원부 전인표

재활의료기관의 법적 근거는 장애인건강권법입니다.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제정 목적으로 하며 의료접근성을 포함한 건강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권이란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의료관련 재활을 포함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사업의 목적은 재활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환자의 기능회복 및 조기 사회복귀입니다.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를 활용하여 전문재활팀에 의한 집중재활치료 및 방문 재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조기에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적정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급성기-아급성기-유지기 재활의료전달체계 속에서 적정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귀 후에도 방문재활 서비스 등을 통해 재활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재활의료기관의 역할이라고 사료됩니다.

급성기-아급성기-유지기 재활의료전달체계를 방문재활을 포함하여 완결성 있게 제공하는 시스템의 선도적 모델은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재활요양시스템입니다. 중앙보훈병원이라는 단일기관 내에 급성기 병원과 아급성기 재활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재활센터, 유지기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이 모두 있으며, 지역사회 속 생활기 재활에 있어서는 원스톱 맞춤형 보훈의료복지통합서비스라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보훈의료복지통합서비스는 퇴원 후 치료계획 상담, 전문의 전화상담, 가정간호서비스, 방문재활서비스, 주거개선서비스, 지역사회연계서비스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방문재활서비스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진료 후 대상자를 선정하고 환자를 방문하여 재활치료와 함께 자가운동방법과 돌봄 방법을 교육하고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합니다. 또한 치료사를 통해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팀 컨퍼런스를 통해 이를 관리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선도적인 보훈재활요양시스템을 바탕으로 서울재활병원이 구축하고 있는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성기-아급성기 재활의료전달체계에 따라 물리, 작업, 언어, 재활심리치료 등 포괄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며 동시에 하루 4시간의 집중재활치료에 참여할 수 있는 환자들에게 입원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입원 재활은 보행 및 기본적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성 회복을 주요 목표로 재활치료료1이라는 환자

맞춤형 개별치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100% 재활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 병동에서 최대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세 차례의 통합계획관리회의를 통해 입원 1개월 쯤에 신체기능의 회복경과 확인 및 구체적 재활 치료 목표를 설정하고, 발병 6개월 시점에 장애 수용 및 적응 훈련 계획을 수립하며, 퇴원 1개월 전에 자택 복귀 및 생활기 재활 계획을 수립합니다. 또한 통합재활안전방문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자택에 외출을 다녀옴으로써 사회 복귀를 준비하게 하고, 지역사회연계활동을 통해 퇴원 전에 돌봄 및 생활기 재활에 필요한 자원을 준비합니다.

퇴원과 함께 생활기 재활을 병행하며 필요한 경우 방문 재활, 낮병동 재활, 외래 재활을 시행합니다. 외래 재활은 특정 활동 기능의 회복과 합병증 치료, 모니터링이나 교육을 목적으로 하며, 이보다 포괄적인 집중재활이 필요할 경우에는 낮병동 재활을 시행합니다. 이 때에는 생활기 재활과 병행이 가능하도록 주3회나 주2회만 진행하고 있으며, 낮병동이나 외래 등 통원이 불가하여 재활 의료접근성이 제한된 경우에는 방문 재활을 통해 실제 환경 속에서 실외 이동 동작을 훈련합니다.

아급성기-유지기 재활전달체계를 위와 같이 현실 속에서 구현하고 있으며, 조기 사회복귀 후에도 재활의료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